

# 무주군, 유용미생물 공급

### EM균·바실러스균 등 220톤... 2개 분소 저장조 교체

무주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용미생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농가들의 사용 용도와 규모를 고려해 EM균과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아미노산 등 220톤을 공급할 예정으로, 고평자와 부녀자, 차량 미소지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신선한 미생물 공급을 위해 2개 분소(안성, 무풍)의 저장조도 교체할 계획이다.



무주군이 관내 농가들의 사용 용도와 규모를 고려해 EM균과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아미노산 등 유용미생물 22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무주군 미생물 배양센터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장원 연구개발 담당은 "미생물의 꾸준한 사용으로 효과를 경험한 사과, 오미자, 토마토, 블루베리 등 경종 및 축산농가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고농도 신선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경영비를 절감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병상 향상으로 수량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 또 축사 내 악취를 저감시켜 환경을 개선하고 보조 사료로 활용해 사료효율성과 소화흡수율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주군은 지난해 201톤, 2016년 247톤, 2015년 196톤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했으며, 2016년에는 축사냄새 제거 위한 유산균과 질소 제거균을 추가로 배양·공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마무리

### 진안군, 809개소 점검 완료... 49개소 보수 보강 필요·10개소 현지시정

진안군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17일 진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5일부터 8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으로 교량, 터널, 다중이용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공공시설은 608개소, 민간시설은 121개소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점검과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을 병행 실시했다.

진안군은 대진단 기간 동안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군수와 부군수가 직접 안전점검에 나서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했다.

대진단 점검결과 752개소는 이상이 없었으며, 현지시정이 10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49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교량, 저수지, 시설물 등

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안전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군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622개소 점검 완료... 89개소 민관합동점검·533개소 자체 점검

장수군은 지난 2월 5일 시작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고 시설물 안전을 강화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관내 공공·민간 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험시설물은 장수군과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은 총 622개소로, 89개소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고 533개소는 자체 점검을 시행했다.

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4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장수초등학교 사거리 등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홍보했다.

3차례의 국가안전대진단 중간보고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군수, 부군수 주재의 현장행정은 4차례 실시했다.

또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보수·보강 추진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꾸준히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 주요 시설들에 대해 현장중심 점검을 실시했고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에 초석을 다지고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에서 좋은 풀사료 종자 자급

### 지역 맞춤형 조사료 생산·공급 체계구축 실무 협약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는 17일 농업기술센터와 축산과, 무진장축협(장수지점)과 함께 '조사료 우수품종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수군의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 및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협약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우수사료작물 품종의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지역 한우사육 농가에 공급하는 지역 맞춤형 풀사료 유통체계(Local Feed)의 구축으로 종자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한우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 우수 품질의 한우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국내육성 조사료인 트리트케일과 호밀, 귀리 3품종에 대해 지역적응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수입산 조사료 종자 대비 20%의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됨을 확인하고 2017년부터 조사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은 산서, 번암지역 10농가(20ha)가 국내육성 조사료 종자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군의 연중 조사료 재배면적은 1,200ha로 연중 200톤의 종자를 수입 재배하고 있어 국내육성 조사료 종자 생산 확대와 보급을 점차 확대해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박우만 무주 도의원 출마선언

박우만 무주 도의원 예비후보(58·민주평화당·사진)가 17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 출마와 낙선의 길을 거듭하면서 주민들과 깊은 교감을 갖게 됐다"고 전제하고 "도의회에 입성해 전북도의 가치와 무주발전을 위해 힘쓰고 연구하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또 "급격한 인구감소와 관광인프라 부족, 농가소득 절감 등으로 무주군민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며 국가유공자 마을 조성, 구체적 농업정책 매진, 학교 예산 확대, 관광이벤트 개발, 노인 1000원 택시 도입 등을 세부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중학생 한의약 성장클리닉 운영

무주군은 5월 23일까지 무주중학교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성장클리닉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의약적으로 접근해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체질진단을 통한 6주간의 집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무주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공중보건한의사와 통합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의료진이 학교를 방문해 체중관리와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기초검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한방침 시술과 한약제, 한방차 등 진료를 비롯해 성장촉진을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 식이요법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찾아가는 맞춤형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 진안읍 원반월·대광1동 마을주민 대상... 매주 목요일

진안군은 17일 우울·불안 감소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우울증 예방 집단프로그램인 '진짜 내인이 소중하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서적 소외감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서 완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안읍 원반월·대광1동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다.

프로그램인 원예요법, 공예요법, 웃음·노래치료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군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21일 마을이장과 사전 간담회를 진행, 28일에는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사전·사후 우울증선별검사 실시 결과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통해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욕구 파악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정서안화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탈피는 물론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장수군은 심각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17일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행정지원과장과 인구정책 관련 팀장 등 17명을 구성해 인구정책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무추진단은 △도시민 유치 방안 △출산·양육·교육 지원 방안 △정주여건 조성 방안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방안 등 인구증가 4대 중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과제별 분과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인구정책 관련 협의 및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

진안군은 지방·광역 상수도 확대 보급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마을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자연환경 개선과 개인 재산권 이용확대의 일환으로 시설물 철거작업에 나섰다.

17일 진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해 소규모수도시설 13개소 폐지를 마쳤으며, 사용하지 않게 된 시설물은 철거작업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들은 시설물 철거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효용을 얻고 있다.

특히 생활용 관정의 농업용 관정 전환을 통해 지하수 신규 개발에 따른 예산도 절감했다.

올해 시설물 철거 예산으로 3천만원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마을상수도 시설물 2개소 철거를 마쳤으며, 추가로 폐지 신고를 접수 중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